

정보사회의 윤리적 도전과 기독교

The Ethical Challenge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Christian Ethics

조용훈

- I. 서론
- II. 정보사회의 특징
- III. 미래사회의 윤리적 문제들
- IV.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과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s ethical problems of the Information-Society and to find out tasks of the church and christian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discusses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Information-Society, and it's social,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Second, what are ethical Problems of the Information-Society?

Third, what are the tasks of the church and christians as the ethical subjects?

To complete their cultural mandate in the Information-Society are the church and christians open to the future and at the same time to keep it's critical distance to that.

I. 서론

70년대에 들어 많은 학자들은 '산업사회'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현대 사회에 문명사적인 대변환이 시작되었다고 공감하게 되었다. 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대 변동을 '제3의 물결'¹⁾ 혹은 '거시경향'²⁾ 등으로 표현했다. 물론 사회는 언제나 변해 왔고 또 변할 것이지만 오늘날 문제시되는 사회변화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도 빠르고, 범위도 엄청나서 보통 사람들로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통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데 있다. 우리는 지금 불과 2~3년 전에 산 컴퓨터가 골동품이 되어버리는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빠른 정보기술의 혁신은 개인의 삶의 형태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

1)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Bantham, N.Y., 1981.

2) John Naisbit, *Megatrends*, Warner Books, N.Y., 1982.

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인간과 사회를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변화된 상황에서의 교회의 자기이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이 논문은 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기독교윤리의 주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문화적 위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지를 논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사회의 변화는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도전을 갖게 할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교회는 어떻게 부단한 자기갱신의 과제를 수행해야 할지를 탐구해야 한다.

II. 정보사회의 특징

학자마다 새롭게 도래하는 사회를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 D. Bell)나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D. Bell) 혹은 '기술전자사회'(Technetronic Society: Z. Brezenski) 등등 각기 달리 정의를 하지만, 미래사회의 근본 특징이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산업이 사회전체의 주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 1968년 동경에서 개최된 미국과 일본의 미래학 심포지엄에서 후기산업사회를 그렇게 부르자고 해서 생긴 용어라고도 한다.³⁾ 어찌되었건 정보사회란 정보유통관련 기술이 고도화되고, 정보의 가치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시되어 정보가치의 생산과 이용을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산업구조는 물품이나 재화 대신 정보나 서비스의 생산으로 변하며, 중심적 가치도 자본이 아닌 정보로 변하여, 정보나 지식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처럼 정보사회는 경제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가치관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정보의 사회화'와 '사회의 정보

3) 원우현, "정보화사회와 문화", 최정호 외, 「정보화사회와 우리」, 소하, 서울, 1995, p. 267.

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

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인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변화하는데, 과거의 '一 대 多數'에서 '一 대 一' 혹은 '多數 대 多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있어서도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는 전통적인 교회 교육방식이나 복음설교 방식의 변화를 요청할 것이다.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생산방식, 즉 가정자동화(HA), 사무자동화(OA), 공장자동화(FA)를 가능케 할 것이다.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사회에서의 주력 산업은 제조업에서 정보산업으로 바뀌고, 자본도 과거와는 달리 유형의 자산이 아니라 마케팅, 경영조직, 아이디어 등의 무형자산으로 변해갈 것이며, 통화 역시 화폐 대신 카드 형태의 전자통화로 전환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물질 생산물만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 생산물인 각종 정보들이 상품화되는데, 물질 생산물보다 더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취급될 것이다. 뉴스나, 광고, 방송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디자인, 아이디어 등 모든 정보들이 특허화되고 고급 상품으로 매매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창의성과 독창성, 전문성을 강조하는 지식노동자들이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등장하여 정치, 경제적 변수가 될 것이다. 사회원리도 표준화(standardization), 분업화(specialization), 동시화(synchronization), 집중화(concentration),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 대형화(maximization)에서 탈대중화(demassification), 탈집중화(deconcentration), 탈중앙집권화(decentralization) 및 소규모화(minimization)의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⁵⁾

정보사회에서는 정치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이제 권력은 군사적 폭력(군사력)이나 경제적 부(자본)보다도 지식과 정보의 힘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6) 정보는 자본이나 군사력과 달리 그 범위가 무한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집권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게 되고, 개인의

4) 임희섭, "정보화사회의 사회구조", 최정호 외, 위의 책, p. 238.

5) Alvin Toffler, 위의 책.

6) Alvin Toffler, 이규행 감역, 「권력이동」(Power Shift), 한국경제신문사, 서울, 1995.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이 개진되고 존중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민주화가 촉진될 것이다. 권력의 형태는 중앙집권화에서 지방 분권화로, 사회조직 면에서는 수직적 위계조직에서 수평적 네트워크형 조직(networking)이나 매트릭스 조직(matrix)으로 변화될 것이다. 권력의 탈중앙집권화는 지역주민들이 중요한 정책들을 직접 결정하는 ‘지방화 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동시에 더 많은 행정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된 시민들은 환경문제, 소비자문제, 주택문제, 교통문제, 지역개발문제 등 각종 지역 현안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과 힘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양한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⁷⁾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의 핵가족 형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족제도들이 - 예컨대 자녀 없는 가정, 이혼한 부부들이 각자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함으로써 생기는 집합가족, 결혼식 없이 사는 동거부부 등 - 등장할 것이며, 가족 구성원의 역할분담도 다양해질 것이다. 재택근무를 가능케하는 전자주택의 등장은 산업사회의 문제였던 직장가정의 분리를 극복함으로써 경제영역만이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 전반을 변화시킬 것이다.

컴퓨터에 비디오, 오디오, 텔레비전, 통신 등이 연결되어 컴퓨터를 통한 재택교육, 환자의 원격치료가 가능해지고, 각종 회의나 쇼핑, बैं킹 등이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한편 뉴미디어는 지구전체를 단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지구촌화’ ‘지구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범세계적인 문화교류인 ‘지구촌 문명’을 열어갈 것이다.

7) 신사회운동은 종래의 노동운동과 계급운동 중심의 사회운동과 구별되는 생활문제 중심의 시민사회운동으로서 산업사회의 사회적 패단을 극복하고 사회체제 내의 사회적 합리성과 의사소통 합리성을 증대시키려는 운동이다.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와는 달리 신사회운동은 공익을 위해 관료제의 전횡과 비효율을 견제하고 시정하려는 초당파적 시민사회 운동이다(임희섭, 위의 책, pp. 260~261).

III 미래사회의 윤리적 문제들

미래에 대한 낙관론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안전해지며, 위험하고 힘든 육체노동으로부터 완전한 인간해방이 가능하며, 가정에서는 홈쇼핑, 홈뱅킹 및 가정자동화로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됨으로 그만큼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정보사회의 생산원리가 대량생산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생산이기에 소규모 공장 가동을 위한 동력은 태양열, 수력, 조력 등의 대체 에너지 활용으로 충분하며, 제품들은 갈수록 소형화되고, 신소재의 개발을 통해 많은 자원을 절약하게 됨으로 에너지나 자원의 위기같은 것이 없을 것이라 본다. 이처럼 자원 및 에너지 절약적인 정보사회 산업구조는 생태학적 위기도 극복할 것이라 본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석탄과 석유같은 화석연료 대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 개발될 것이며, 재생불가능한 자원 대신 재생가능한 자원들이 개발됨으로써 환경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보사회의 정치 역시 낙관적이다. 시민 누구나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정보가 대중화됨으로서 권력자의 정보독점이란 불가능하며, 게다가 권력의 탈중앙집권화는 과거와 같은 전체주의적 정부출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 한편 정보사회의 도래는 문화면에서 지구촌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공동운명체성과 강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국가간 전쟁의 위험이 적어져 세계평화가 증진되리라 낙관한다.

우리는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부분적으로 설득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윤리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우리는 “정보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서술적 물음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보사회인가?” 하는 윤리적 물음에 집중해야 한다. 정보사회는 과연 인간적이며, 사회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 가능한지를 비판적으로 질문해야만 한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서 다음 몇 가지 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들을 언급할 수 있겠다.

첫째, 개인 사생활 정보의 유출로 인해 생기는 인권 침해 문제이다. 오늘날 여러 국가기관, 예컨대 경찰, 복지, 세금, 교육, 법 관련 기관들이나 백화점, 신용회사, 통신판매회사, 마케팅 기구, 은행 등 광범한 상업기관들이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확보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의 가족관계, 신체관련 사항, 취미 및 특기사항, 종교사항, 재산정도 등 신상정보가 유출 또는 악용될 위험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백화점의 고객관리 정보가 범죄집단에 의해 사용된 예를 우리는 '지존과 사건'에서 분명히 보았다. 행정편의를 위한 교육, 행정, 금융, 공안, 국방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는 '국가기간 전산망'에 의한 개인정보의 네트워크화 역시 그 선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칫 시민들을 '어항 속의 물고기' 신세로 만들 위험도 있으며, 정권 담지자들이 국민에 대한 통제와 감독 수단으로 정보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그 외에도 정치범들의 자유는 더 제한될 것이며, 노동운동가들의 재취업 기회는 완전히 사라져 개인적 인권 침해는 물론이려니와, 사회변혁 운동들을 그만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보사회 비판가들은 정보와 전기통신 컴퓨터 체계를 가리켜 '감시기'(Rosazk), '감옥 같은 컴퓨터'(Lyon) 혹은 '전자원형감옥'(Robins and Webster)이라고 비판한다.⁸⁾ 이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생활보호권과 관련된 적절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국가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와 테러로부터 인간과 사회를 보호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신용카드 위조, 중요 신상 기록이나 건강기록의 훼손이나 왜곡, 횡령 등의 개인과 관련된 컴퓨터 범죄만이 아니라 운송, 커뮤니케이션 및 은행, 병원, 관공서의 체계의 파괴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정보의 과잉 입력(information overload)을 처리할 수가 없어 일어나는 장애현상인 정보과잉의 문제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정보량 때문에 전문가들마저 전공분야 관련 연구서적이나 논문을 채 읽지 못하게 되고, 도서관들은 소장도서 정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용되지 않는

8) Barry Smart, 설광석 외 역, 「현대의 조건. 탈 현대의 쟁점」(Modern Conditions, Postmodern Controversies), 현대미학사, 서울, 1995, p. 88.

정보들이 쌓여가게 된다. 정보의 질이나, 필요 혹은 불필요를 따지지 않는 정보의 과다범람은 정보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에 무감각해지거나,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선택보다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무조건 동조하게 하거나 혹은 같은 정보 자료만을 수용하는 등 선택의 단순화, 동일화, 동일화의 역기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⁹⁾ 정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사람들의 집중력과 비판력이 상실되어 엄청난 양의 정보로 인해 혼란과 방황,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일도 생겨날 것이다. 판단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결국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어 정보제공자나 매체의 조종을 받을 우려도 있다. 한편 다양한 교과의 신학사상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을 통해 제공될 경우 정통 신앙과 사이버 신앙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져 분별력이 부족한 신앙인의 선택을 혼란케 만들 것이다.

셋째, 정보소유관계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심화시킬 위험성의 문제다. 낙관론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뉴미디어의 대량 보급을 통해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지역간 혹은 계층간의 격차가 해소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카츠만 나탄(Katzman Natan)은 뉴미디어 기술혁명에 지식격차를 더 넓히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리라고 예견하는데, 그 근거로 첫째, 새 테크놀로지의 초기 수용자들이 대체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 둘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기존의 정보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는 점, 셋째,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새 테크놀로지를 쉽게 접하고 수용한다는 점, 넷째, 이미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많은 사람일수록 새 테크놀로지 사용에 있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는 점이다.¹⁰⁾ 그 외에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기존의 지역적, 계층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되는데, 또 다른 이유들은 우선, 모든 테크놀로지란 본래 기존의 권력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며, 다음, 지배계층의 정보독점을 통해 지역간, 계층간의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기 때

9) 최정호, “서론: 정보, 미디어, 인간”, 최정호 외, 위의 책, p. 18.

10) 박문수, “정보사회의 윤리문제와 신앙생활양식”, 「신학사상」 90, 1995 가을, p. 40.

문이다.¹¹⁾ 그리고 정보기술이 군사적, 상업적, 산업적 목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국가에 의한 제도적, 행정적, 관리적 지휘와 통제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발전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정보기술에 의해 사회가 평등해지리라는 낙관적 전망은 비현실임을 알 수 있다.¹²⁾

넷째,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정보화 토대가 튼튼한 산업국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의 정보격차로 인한 힘의 불균형 역시 더 심화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보다 더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컴퓨터 전자공학, 극소공학, 항공우주공학이 기술혁신과 발전을 주도할 것이며, 그로 인한 국가간 정보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국과 저개발국 사이의 정보의 기반구조도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컴퓨터 보급을 예로 들면 미국은 인구 1천명 당 265대, 이탈리아는 57대인데 비해 중국과 인도는 1대 뿐이다.¹³⁾

다섯째, 가치관 면에서 개인화가 강화되어 그로 인해 개인들의 고립감도 증대할 것이다. 정보사회는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개인이 시간적, 공간적 제한없이 광범위한 집단과 사귄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컴퓨터 오락과, 컴퓨터 통신에서 보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접촉 기회는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뉴 미디어를 통해 이웃과의 대인접촉은 직접적 대면 대신 화상접촉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재택수업이나 화상회의를 통해 정보는 전달할 수 있겠지만 눈과 눈으로, 감정과 느낌을 통해 행해지는 비공식적 교육들은 불가능해지고, 깊은 인격적 대화는 더욱더 불가능해질 것이다. 웹스터와 로빈스(Webster and Robins)의 관찰대로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는 더 많은 의사소통, 이해, 사회적 조화를 증진시킨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허구인 이유는 새로운 통신매체의 일차적 기능이 “의사소통이 아니라 판매”일 뿐이기 때문이다.¹⁴⁾

11) M. Hepworth and K. Robins, “정보사회: 주변부 관점”, 김승현 편, 『정보사회 정치경제학』, 나남, 서울, 1990, p. 218.

12) Barry Smart, 위의 책, p. 86.

13) 박문수, 위의 책, p. 42.

14) Barry Smart, 위의 책, p. 86.

여섯째, ‘문화적 동시화’(cultural synchronization)와 그로 인한 저개발국의 문화적 자주성의 파괴문제이다. 정보사회에서는 뉴미디어를 통해 공간적 국경이나 시간적 차이를 넘어서 정보교류가 가능케 되어 ‘지구촌’, ‘지구도시’라는 말을 실감케 된다. 그런데 뉴미디어는 중심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통해 만들어진 문화산물을 전세계에 동시적으로 유행시키는 첨병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 세계 각국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체계가 파괴되고 있다. 전통의식이 나 복장, 전통음악들은 ‘국제화’의 미명하에 점점 사라지거나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 고유춤, 고유의상이라는 것들마저 관광수입을 위해 서구인의 입맛에 맞추는 식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한편 외국 방송프로그램이 전파를 통해 유입되는 ‘전파윙정’(Spillover)으로 인해 수용국의 전통적 사고방식, 정서, 가치관과 윤리관은 파괴되고, 외래문화에 대한 숭배 및 모방으로 수용국 문화산업이 붕괴되며, 서구의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제3세계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인해 ‘문화제국주의’가 생겨날 위험도 있다.¹⁵⁾

IV.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과제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러한 사회변화를 우리가 낙관적으로 전망하든지 비판하든지 상관없이, 미지의 미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보다 더 빠르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해 묵시적 종말론에 빠져 과학기술발전을 인류종말의 막다른 골목길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정보통신기술 혁신이 지상에 하나님나라 건설의 지름

15) ‘문화제국주의’란 “한 사회가 근대적 세계체제 속에 편입되는 과정, 그리고 그 사회의 지배적 계층이 세계체제 중심부의 가치와 구조에 합치하는, 나아가 그것들(가치와 구조들)을 부추기는 사회제도를 형성하는 과정의 전체”를 의미한다. 한편 ‘정보제국주의’란 문화제국주의의 한 부문으로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유통의 양적 불균형과 그러한 불균등한 유통의 구조가 지니는 효과를 의미한다(강명구, “정보제국주의: 기득권자의 독점에서 전자민주주의 사회로”, <한남대학신문>, 1996년 5월 6일).

길로 낙관하는 그리스도인도 생겨날 것이다. 과학기술발전을 악마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우상화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롬 12:2)는 말씀을 책임윤리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교회의 사회관계가 ‘절대 비판적 대립관계’나, ‘절대 낙관적 동일시관계’가 아니라 ‘비판적 거리를 가진 변혁관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¹⁶⁾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책임윤리적 입장은 과학기술을 악마화하거나 우상시함으로 생기는 숙명론을 극복하려 하는 입장이다. 이 두 입장은 과학기술을 신화화함으로서 그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비판, 인간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책임윤리적 입장은 인간 이성에 기초한 과학기술을 하나님의 문화 위임(창 1:28)의 수단과 도구로 보면서, 그 사회윤리적 결과와 영향을 성경과 교회전통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판단하려한다. 책임윤리는 기술발전과 관련하여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그 오용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최소화 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비판적 안목으로 미래의 전개를 동행하고, 미래가 보다 인간적인 형태로 형성되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너무나 빠르고 근본적이어서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문제해결책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는 미래윤리적 시각이 더욱 요청된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다음 몇 가지 구체적 과제를 명시하려 한다.

첫째, 교회의 자기이해와 목회방식의 변혁의 과제다. 교회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수용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의 행정을 전산화한다는 피상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그러한 기술혁명에 기초한 새로운 문명 속에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교회는 정보사회에서의 신앙과 영성의 의미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교회의 조직과 구조변화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복음 선포가 과거와 같은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16) Richard Niebuhr, 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 대한기독교서회, 서울, 1980; Robert E. Webber, 이승구 역, 「기독교 문화관」(*The Secular Saint*), 엠마오, 서울, 1990.

쌍방향 전달로, 활자매체를 통한 복음전파에서 멀티미디어를 통한 전파로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교회의 형태나 신앙 양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신자들은 텍스트에 기초한 소리중심의 설교 대신 영상중심의 설교를, 논리적인 메시지보다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선호할 것이다. 한편 재택근무와 재택교육, 재택치료의 확대 결과, 종교적으로는 재택예배의 요구를 강화시킬 것이다. 전자교회의 등장으로 신자들은 교회에 가지 않고서도 구미에 맞는 설교자의 설교와 신앙정보를 얻게될 것이어서 점차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의 숫자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발전 속도와 인간의 윤리의식 발전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기술혁신의 속도는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질 것이다. 더불어 인간의 정신문화와 윤리의식이 과연 과학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있을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것이다. 일찌기 슈바이처(A. Schweitzer)는 「문화와 윤리」(1923)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문화의 운명적인 불행은 문화가 정신보다 물질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발전한 데 있다. 그 균형이 파괴되었다.”¹⁷⁾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교육경제연구소가 <국민소득 1만불시대 국민 의식조사>에서 미래에 대비해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겠느냐는 물음에 49.6%가 인간성과 도덕성 회복에 두었다는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겠다.¹⁸⁾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역할과 과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정신적, 윤리적 영역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주의 극복과 공동체의식 함양의 과제다. 정보사회는 탈대중화, 다원화, 분산화, 분권화를 사회원리로 삼기 때문에 개인의 개체화가 촉진된다. 개체화에 기초하는 개인주의(Individualismus)는 ‘집단주의’(Kollektivis-

17) Albert Schweitzer, *Kultur und Ethik*, 2. Aufl., C. H. Beck, München, 1923, S. 2.

18) <한겨레신문>, 1996년 3월 23일.

mus) 혹은 ‘전체주의’(Totalitarismus)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윤리성을 결여한 극단적 개인주의는 이기주의화되어 개인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정보사회에서 개체화 경향은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책임감을 증대시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유희도 증대시킬 것이다. 각 개인들은 자신을 집단에 소속시키거나,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해 책임을 분담하려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개체화의 욕구와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욕구도 증가할 것이다. 기술문명, 물질문명에 한계를 느끼고, 개인화의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그러면서도 과거의 위계적이고 딱딱한 조직은 거부하는 새로운 개인화된 공동체 운동의 시도들은 열광주의적인 종파나, 근본주의적 종파, 사이비 종파 혹은 ‘뉴에이지운동’(new age movement)같이 비의적인 형태의 종교운동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인구의 5~10%나 되는 동조자들이 특별한 조직 교회나 교리를 가지지 않고 개인적 명상이나 영적 체험을 통해 개인의 내면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새로운 종교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¹⁹⁾

그러나 정보사회에서의 공동체는 혈연, 지연에 의한 공동체(Gemeinschaft)나 이해관계에 따른 대규모 조직공동체(Gesellschaft)와는 달리 ‘자율적’이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자발적’ 연대에 의해 형성되는 소규모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여 도전받고 있는 교회는 조직을 보다 인간해방적으로, 구조를 보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유기적 관계를 맺는 신앙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성원들 사이는 사랑과 신뢰, 친교의 관계여야 한다. 따라서 예배 외에도 보다 많은 공동체훈련, 기독교적 인간관계 훈련 등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생활태도’의 모범자가 되어야 한다. 정보사회 혹은 후기 산업사회는 대중소비사회와 맥을 같이한다. 소비사회

19) 임희섭, 위의 책, p. 249.

에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 행복을 소비에서 찾게 된다. 소비사회에서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그가 얼마 만큼의 소비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 사람이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떤 가구를 장만하는지에 따라 그의 사회적 신분이나 직위 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평가한다. 말하자면 상표는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을 다른 사회계층의 사람들과 구분하는 방법이 된다. 사회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마음 속의 절망과 공허, 혼란, 스트레스 등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보상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소비에 매달린다고 한다. 흡연이나 마약 등 환각제를 찾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자신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존재적 불안을 극복할 힘이 없어서 탐닉하듯, 이들도 소비에 탐닉한다는 것이다. 소비는 중독증이 있어서 더 많이 소비할 것을 요청한다. 마치 성적 쾌락, 식욕의 포만감, 마약의 환각과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고 절정에 달했다고 느끼는 순간 깊은 공허감에 빠지게 된다. 소비에의 탐닉이 이처럼 병리적인 현상이기에 거기에 만족감, 행복감이 있을 리가 없다. 그 결과 소비수준은 끝없이 상승하지만 사람들은 그만큼 더 불행해진다. 그외에도 소비문화의 확산은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그만큼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소비주의 확산으로 인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강화는 인간의 내면적, 영적 욕구들을 무시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희생과 절제, 전적 헌신의 종교적 자세를 버리고 현세적이고 안일하고 쾌락적으로 되어간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점차 레저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주일의 종교적 의미는 사라져 갈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같은 소비문화, 물질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과소비나 낭비, 과시소비, 모방소비, 맹종소비, 즉흥소비가 아닌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야겠다. 포스터는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에서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첫째, 물건을 살 때에는 위신에 관계없이 실용성에 따라 살 것. 둘째, 탐닉하게 만드는 것을 모두 물리칠 것. 셋째, 물건들을 주어버리는 습관을 기를 것. 넷째, 광고에 속지 말 것. 다섯째, 소유하지 않고도 즐기는 법을 터득할 것. 여섯째, 삼라만상을 더 깊이 감상할 것. 일곱째, “지금 사고, 값은 나중에”라고 말하는 할

부판매의 덫에 조심할 것. 여덟째, 꾸밈이 없고 정직한 말을 할 것. 아홉째, 남을 억압하게 될 일을 물리칠 것. 열번째, 삶의 주요 목표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권을 둘 것.²⁰⁾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적 덕목이었던 금욕과 절제의 윤리관을 새롭게 함으로서 물질만능, 소비만능의 사고를 극복해야겠다. 더 나아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며 자족하는 윤리관을 강화해야겠다. 이에 대해 바울은

“...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나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1-12)

라고 고백하고 있다.

다섯째,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정보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정보사회에서는 개인들 사이만이 아니라 국가들도 무한경쟁의 관계가 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보처리 능력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에 빨리 접근하여, 빨리 처리하는 ‘빠른자’들이 권력과 부를 차지할 것이다. 문제는 빠른 자는 소수일 것이며 대부분은 느린 자일 것이고, 일반적으로 젊을 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그리고 남성일 수록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노년층, 저학력자, 여성들은 점점 사회의 중심부로부터 소외되며 실업자도 증가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80년대에 들어와 소위 ‘하이테크’ 활용으로 300만명의 새 일자리가 생겼지만, 2,500만명의 일자리가 소멸되었다.²¹⁾ 교회는 이들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정보 약자들을 대변하여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약자를 편들을 통해 정보정의를 수립하는 것은 한 사회 내의 계층 간에서만이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해당된다. 이를 위해선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칼 협력이 더 요청될 것으로 보인다.

20) Richard J. Foster, 편집부 역, 「영적 성장을 위한 제사훈련」(Celebration of Discipline), 보이스사, 서울, 1982, pp. 165-174.

21) 최정호, 위의 책, p. 16.

여섯째, 정보사회는 ‘지구촌화’(globalization)를 촉진시켜 문화적 다원주의를 열어갈 것이다.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대화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오랫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의 경우 자칫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 경향으로 호를 위험이 적지 않다. 근간의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언행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세계시민으로서는 부족함이 많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종교들에 대해 개방적이고 대화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구환경위기와 핵무기에 의한 인류의 생존위협은 세계인의 공동체적 시민의식 혹은 세계윤리(Weltethos)²²⁾를 더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기술낙관주의, 소위 컴퓨토피아(computopia)나 테크노피아(technopia) 환상에 대한 비판이다. 인간은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듯이 생각한다. 슈퍼 컴퓨터가 복잡한 정보들을 분석하여 적절한 인류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프롬(E. Fromm)의 말대로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 확신성을 필요로 하는데, 컴퓨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의미에서 컴퓨터를 현대의 우상으로 본다.²³⁾ 인간은 컴퓨터를 통해 제한적 이성이나, 변덕스런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쌓는 과학기술의 바벨탑이 하나님이 여시는 ‘새하늘과 새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의 미래로서의 ‘futurum’은 하나님의 도래하심으로 열려지는 미래인 ‘adventus’와는 다르다.²⁴⁾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지,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희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유토피아가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기술낙관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성을 끊임없이

22) Hans Küng, 안명옥 역, 「세계윤리구상」(Projekt Weltethos), 분도출판사, 왜관, 1992.

23) Erich Fromm, 한동세 역,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The Revolution of Hope), 삼성미술문화재단, 서울, 1980, pp. 78-79.

24)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3. Aufl. Gütersloh, 1987, p. 124.

폭로하여 우상화의 위험을 막아야 할 것이다.



■ 조용훈 ■

장로회 신학대학 및 신대원에서 신학 전공, 독일 Bonn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 수여, 장로회 신학대학 감사 역임, 현 한남대학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으로 활동, 주요연구로는 "개발문제와 기독교사회윤리", "지구환경위기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교회의 역할" 등이 있음.